

Out of line

정소영

끊임없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건물들.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물건들. 자라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이야기들.

공간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본다. 그리고 공간이 자라나고 조각나 새로운 풍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상상해본다. 분해하고 재구성한다. 이렇게 변화된 공간은 또 다른 무언가로 변신한다. 하지만 이 모습은 과거의 흔적이자 동시에 새로운 세계이다.

이러한 변이의 과정의 순간을 잠시 잡아둔다.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맴도는 풍경이 펼쳐진다.

<Uncompleted Fragment II>는 전시장에서 철거 후 남겨진 건축 자재 또는 전시 철수 후 남겨진 잔재물들이 그리는 풍경의 재구성이다. 창조되기도 전에 해체되고 있는 순간을 먼저 재현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다.

분해된 공간은 남겨진 구성요소_각목, 형광등, 시멘트 그리고 다양한 오브제들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지어지기 위한 준비단계와 같은 상태로 전환된다.

미완결과 해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<Uncompleted Fragment II>은 모빌과 같이 천장에 매달려 형광등, 시멘트 조각, 각목 등과의 무게를 비교하며 힘의 균형과 비균형의 관계를 표현한다. 중력의 긴장감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그 공간을 이루는 물리적 요소들의 심리적 관계를 다룬다.